

# 응시의 초점이 맞을 때

~입상지도를 하면서~

<연세외대 간호학과> 전 산 초

7월의 무더위를 피해 짙은 녹음과 푸른 바다가 그리워지는 때가 되면 나는 무언가 마음에 아늑하고 충족된 기분에 지내게 된다. 계절의 탓만은 아니라고 생각하기에 더욱 그 기분은 호뭇하기만 하다.

× × ×

3학년 학생들의 내의과간호 실습이 이때가 되면 제법 체도에 올라 우리가 이상하는 간호원의 모습으로 나의 응시하는 초점 안에 들어오는 것을 볼때 느끼는 그 예이릴 수 없는 희열과 만족감 때문이리라.

학기가 거의 지나 이때쯤 되던 주어진 assign에 급급하거나 서투른 procedure에 사로잡혀 여기에 신경을 쓰는 시기를 넘어선다. 그리고는 간호를 하면서, medication이나 injection을 하면서도 제법 환자와 주위를 보살피고 그의 안위를 도모해 주려고 노력하는 여유를 가지는 모습이 눈에 띄이기 시작하는 때다. 그들은 지금 가장 진지하고 배운 법대로 하고 간호의 理想의 꿈을 實現해보

려고 하는 귀여운 때이다. 그 뿐인가 이때쯤 되면 눈에 거슬려 보이는 일 또 옳고 그른 것을 비판해 헤아릴 줄도 알게 되는 때이다.

그들의 눈은 반짝이며 모습은 정갈하고 시혜롭다. 제법 환자의 진단과 경과 및 상태도 잘 파악하고 있어 자신감을 가지고 해보려고 노력하는 때이다.

이 시기를 택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program이 계획되어 있다.

5월 마지막 주간에 clinical conference 시간의 discussion의 주제를 우리들이 임상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문제환자(problem patient)에 대한 것으로 하고 있다.

이 학생들은 이미 환자와의 의사소통을 어떻게 원만히 할까? 심리적 간호, 간호진단, 간호계획 등에 대하여 강의를 받았고 또 이 conference를 위해 여기 과한 참고서적을 읽어 들 숙제를 몇주일 전에 받고 책을 다 읽어 이미 problem patient에 대한 논할 수 있는 기초지식들을 가지고

있다.

× × ×

우리 group에서 택한 환자의 type은 “협력하지 않는 환자”였다. 자기가 병실에서 간호하는 중 치료와 간호에 거부하거나 협력하지 않아 문제가 되는 환자를 중심으로 conference는 진행되었다.

대개 질문과 discussion의 순서는 이러하였다.

1. 이 문제의 환자는 어떤 종류의 태도를 나타내는가?
2. 왜 비협조적인가?
3. 어떤 심리적 기본요구가 있는가?
4. 간호원은 이 문제의 환자에게 어떠한 태도로 배웠나 (react)?
5. 왜 간호원은 그런 반응을 환자에게 나타냈는가?
6. 문제의 환자의 요구를 간호원이 어떻게 발견하였나?
7. 환자로 하여금 자유롭게 이야기를 진행할 수 있게 하려면 간호원은 어떻게 할까? 또한 어떻게 환자 자신의 문제를 계속해서 이야기할 수 있게 격려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의 출제되었다.

A 학생: 『○호실 ○재 28살 Bronchial Asthma, 1968년 2월 14일 입원한 ○씨를 나는 비협조적인 문제환자로 정하고 오늘 여기서 논하고 싶습니다. 요제음 medication을 제가

하는데 늘 환자가 의출하고 없어서 medication을 할 수 없거던요? 그러던 중 하루는 환자가 마침 자리에 있어서약을 먹이려고 하니깐 “거기 놔두고 가세요”하기에 bed side table서 사람을 열어 보니 약이 수북히 모였는데 어떤 때는 약을 하루치를 다 모았다가 저녁에 돌아와서 한꺼번에 먹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환자를 “Un-cooperative Patient”라고 생각하고 오늘 트의해 보고 싶습니다.

B 학생: 저는 그 환자가 참 마음도 좋고 자기 병에 대하여 잘 알고 있고 절대로 비협조적 환자라고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C 학생: 오늘 아침 간호를 하려고 들어가니까 홀이블을 더티 꼭대기까지 뒤집어 쓰고 있어서 “○씨 아침 간호해 드리겠습니다.”해도 영 대답이 없고 깨우던 또 자는 사람 깨운다고 화를 낼것 같아 무서워서 그냥 나왔는데 내 생각에는 자는것 같지 않았어요. 문제환자라고 생각하고 연두를 쫓해 불만도 하다고 생각됩니다.

D 학생: 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그 환자하고 이야기를 쫓해 보았는데 자기가 의사보다도 자기 병에 대하여 더 잘 안다면서 내가 teaching하는 이야기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더군요. 그런데 자기 병은 연탄 가스와 번소의 가스가 제일 나쁘기 때문에 퇴원을 못한다는군

요. 『한국집에 난방장치와 수세식변소가 있는게 몇 집 되나요. 나는 미국에나 가서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젊은놈이 할 일도 많은데 이렇게 하고만 살아야 하니 참 큰일이야요』하더군요. 그리고 형님 술하에 있는데 형수하고 trouble 이 있어 집에만 돌아가던 정신적인 stress 가 생긴데요.

**교학생 :** 지금들은 모든 환자의 태도 (behavior) 로 봐서 이 환자를 “Un-cooperative Patient” 로 진단하고 트의를 진행시키는데 가할 줄 압니다.

**다른학생들 :** 네, 좋습니다.

**Group leader :** 그러면 왜 이 환자가 이렇게 비협조적인지 왜? 이런 태도를 나타낼 수 밖에 없는지 연구해 봅시다... (시간적 여유를 두고) Miss Lee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만히 계시지만 말고 말씀 좀 하세요.

이 Discussion 은 이렇게 시작하여 끝까지 진지하게 토의되었다. 이 내용을 끝까지 기록할 수는 없으나 마즈락 한 학생의 말에 초점을 맞추고 끝마치려다.

**X 학생 :** 아까 Miss C 가 『홀이를 뒤집어 쓰고 있어서.....』했을 때 선생님께서 그렇게 홀이를 쓰고도 학생이 무얼하는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 환자일수록 간호원의 태도에서 더 관심이 많으니 더욱 조심해서

이런 환자는 더 친절히 사랑으로 대하여야 합니다. 하셨을 때 저는 잘작 놀랐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어느날 제가 그 옆 환자 퇴진을 따라갔었는데 무심코 그 환자를 돌아다보니 뒤집어쓴 홀이불을 빼꼼히 들치고는 몰래 이쪽 형편을 내다보지 않겠어요? 그때는 그저 그러나보다 하고 무심코 나왔는데 선생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니 과연 그렇겠습다. 그리고 지금 conference 가 진행되면서 생각하니 우리는 병실에서 많은 환자에게 충분한 care 를 못해 주고 놓쳐버리겠구나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이 환자도 별로 열도 없고 고통을 느끼는 것 같지도 않고 한 두어번 밤에 asthma 의 발작이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고 환자 곁에 산소 탱크가 있는 것을 아침에 볼 뿐이고 환자는 들어가면 싱글싱글 웃기도 하고 흐는 홀이불을 뒤집어 쓰고 자거나 외출하거나 하는데 벌써 거의 5달이나 임원해 있으니까 그저 무관심했고 특별한 간호가 필요 없는 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study 를 하고 나니 참 이 환자에게는 더 많은 관찰과 관심과 인내를 가지고 간호해야 되겠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의사나 검사실직원이나 다른 medical team member 가 할 일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해야 할 간호의 분야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conference 는 많은 유익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B 학생 :** 네 이 환자는 우선 자기 병에 대해서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가장 잘 안다고 하니 이것을 정정해 주어 올바른 생각을 갖고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개념을 넣어 주는 teaching need 가 있습니다.

**C 학생 :** Psychological needs 중에도 사랑의 요구와 사회적 인정 및 달성의 요구에 불만이 있는 것이 문제이니 이것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이끌어 보아야겠지요?

**group 서기 :** 네! 다음 Ward conference 시간에 저희 group 이 발표할 환자가 바로 이 환자이니 그것을 위해 problem solving 에 대하여 더욱 철저히 연구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리하여 학생들은 새로운 경지를 발견한 듯 기쁜 마음으로 교실을 나간다.

× × ×

임상에서 나는 그들과 같이 있으면서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도움고 보다 좋은 환경에서 효과적인 실습의 결과를 주고자 늘 그들을 가까이 하고 싶어하고 환자와 그들을 함께 관찰한다. 그리고 나는 여기서 환자와 관련된 그들의 여러가지 모습을 응시하며 느끼게 된다.

× × ×

그들은 깨끗한 하얀 마음으로 실습하면서 봉사한다. 파—란 유니폼이 그들의 마음과도 같이 청초하기만 하다. 단지 배우고 봉사하겠다는 마음뿐, 요즈음 일탄 직업인들이 가지는 욕망이랄까 혹은 직업의식에서 완전히 떠나 있는 것을 역력하게 엿볼 수가 있다.

× × ×

오래 오래 앓다가 뼈와 가죽만 남은 앙상하고 질식된 듯한 검푸른 얼굴에 치솟은 두 눈동자 이는 보기에 도 무서운 모습이다. 코를 찌르는 냄새를 풍기는, 사랑하던 가족마저 지쳐 버리고, 속절없이 그리고 외로움의 깊은 바다속에서 숨져가는 환자 옆에서 그의 가쁜 숨결과 끊어져가는 맥, 애원하는 듯한 눈동자를 안타까히 지켜주며 말없이 물봐주는 그 모습, 그림 속의 아기 천사를 보는 듯 가늠하면서도 귀엽구나.

× × ×

장암으로 백설물이 온통 백토 울터나와 온몸은 오물로 더럽혀지고 그의 방안 공기는 그야말로 육된 냄새로 꽉 차 있는 병실, 그 곳에서 너는 오로지 그를 가엾다 여긴 나머지 더러운 것도, 악취도 관여하지 않는다. 침착하고 탄탄한 표정으로 환자를 안심시키면서 네 몸을 적서 그를 씻기고 갈아 입히고 벗겨서 아파하는 앙상한 등뼈를 어루만져 주며 분까지 발라 깨끗하고 편안할 자

티를 만들어 주는구나. 누구의 킹관도 고마워함도 관여하지 않고 순전히 환자 중심의 목적이 있는 세계, 과연 여기에 우리들의 “간호의 철학”이 있다지 않느냐?

× × ×

하루는 어떤 환자 (Empyema to open drainage 한 환자)가 눈물을 머금으며 감명깊게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저의 등과 옆구리의 상처에서 흐르는 백설물이 많아 dressing을 두껍게 대고 있어서 바로 누우면 등과 옆구리의 상처가 너무 배기고 아파 침요를 사다가라도 구멍을 뚫고 누워볼까 생각하고 있었는데 한 학생이 솜으로 포근한 또아리 방석을 만들어다 고여 주어 얼마나 편안하고 고마웠는지 모릅니다. 그후 엉덩이 뼈있는 곳에도 이런 것을 깔았으면 좋겠다고 막연히 느끼면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또 하나의 방석을 만들어다가 바로 그곳에 대어 주지 않겠어요? 미처 말을 꺼내지도 못했고 부탁도 하기 전에 말예요. 이것이 과연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요 야 누가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며 감사한다.

이런 일을 고맙게 생각하는 환자에게 나는 도리어 고마움을 느끼면서 너의 아름다운 마음씨와 손길을 저들은 이토록 간절히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육신도 병들었지만 마음이 괴로워 잘못 잔다는 환자의 하소연을 진지하게 그리고 조용한 태도로 들어 주는 너의 아량……다 듣고 난 후 문제점을 찾아내어 이를 해결해 주려고 애쓰며 자기의 부족한 힘을 안타까히 생각하는 그 모습, 나는 네가 그 인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느냐? 혹은 못가졌느냐에 따라 그 가치를 발견하려고 하기 보다는 그 환자가 얼마만큼 자기 마음 속의 문제를 쏟아 놓고 정신적 압력을 발산시키므로써 마음의 평안을 얻고 또 한편으로는 누가 자기의 문제나 마음의 고통을 알아 주고 자기를 도와 준다는 그 사실 만으로도 환자는 위로와 격려를 받아 나아가고 있다. 사실 현대의학, 간호학이 병의 치유에 “Psychological Need”를 부르짖고 있는 오늘날, 너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지금 실행에 옮기고 있으며 나는 여기서 너의 참 가치를 발견하였노라.

× × ×

『안녕히 주무셨어요, 밤 동안 불편하신 일은 없으셨습니까?』

『이 병원 간호원은 왜 이렇게 불편질합니까?』

『참 안됐습니다. 그럼 지름이라도 무엇을 어떻게 도와 드릴까요? 기탄없이 말씀해 주세요.』

『이 붕대 (elastic bandage)가 더러워 좀 갈아 달래도 안갈아 주고

발을 좀 씻어 달래도 안씻어 줍니다. 밥에는 돌이 많아 영 먹을 수가 없구요. 창문은 말을 안들어 잘 열고 닫을 수도 없고 변소도 이 층에는 양변기가 없어 불편하여 6층 변소(자기가 먼저 있던 병실)로 올라 다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붕대가 과히 더럽지는 않았으나 새것으로 바꿔 잡아 주고 틈을 보아 몸도 청결히 해주었으며 화장실은 같은 층의 다른 병실 것을 쓸 수 있게 알아 보도록 하였다. 그리고 주방에는 전화로 “밤의 돌”에 대하여 주의를 주었다.

이튿날 아침 그 환자는 먼저 인사를 하며 도리어 미안하다고 웃는다. 그는 다리의 끈질로 오래 일월해 있으면서 6층 병실에서 우리 병실로 옮겨 왔으며 그의 육체적인 병은 거의 나아가는 증이었으나 오랜 병원 생활로 마음이 휘어져 그야말로 마음의 교정도 필요한 사람이다. 누가 자기의 존재를 알아 주고 어루만져 주며 사랑(치료와 간호를 주고 받는 범위에서)을 해 주기를 바라나 이 요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생기는 불만이 이런 경우의 환자에게 많다.

이렇게 중한 환자는 중한대로, 회복기 환자는 철없는 아이가 보채는것 같이 더욱더 우리들의 손길과 마음의 배려가 자기들에게 미쳐 주기를 바라고 있으며 사실상 그들에게는 이것이 필요하다. 우리는 바쁜 중에도

마음과 손길이 구석구석 빈틈없이 섬세하게 미치지도록 계획하고 움직여야 하리라고 느끼는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 × ×

임상간호에 있어서 간호가 중요한 것은 물론이나 환자의 빠른 회복을 위해 합병증이나 재발을 예방하기 위해 환자를 교육하는 것도 중요한 간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teaching 을 또한 강조한다. 따라서 나이 어린 학생이 모든 면에서 어른인 환자를 가르치게 되는데 이 어른 환자는 아주 순순히 열심히 너희 가르침을 받아 드리며 진심으로 배우며 고맙게 생각한다.

물론 너희들은 이것을 위하여 배운대로 또한 원칙대로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였는가? 나는 이것을 엿볼 수 있다. 왜? 이렇게 준비한 경우에만 성공적인 teaching 이 이루어져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열에서 그 모습을 볼 때 보람을 느끼고 미소를 지으며 나는 다음 학생의 간호하는 모습을 찾아 발길을 옮긴다.

× × ×

학생들의 임상실습의 발전을 위해 우리는 학생에게 자기평가(self-evaluation)를 기록하게 한다. 나는 너의 (여기 너라고 지적을 당한 학생은 개성이 뚜렷하고 몹시 날카로운 성격을 지닌 한 학생을 말한다)

기록에서 이러한 것을 발견하고 감명을 받았구나.

문 : 당신은 당신의 환자에게 좋은 간호를 했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간호를 할 수 있을까요?)

답 : 아니요, 저는 저를 중심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 기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나라는 존재를 내세우지 않고 그들 밑에 들어가서 일하므로 나를 찾고 싶습니다』라고.

나이 어린 대학생이 자기를 부인하고 환자를 위해 일하는 자기 모습을 찾기를 갈망하며 노력하고 수련

을 쌓는 배움의 자세, 이는 오늘날 모든 대학생들이 다 이와 같이 행하여 주기를 바라는 자세라고 아니하겠는가?

더우기 봉사의 요소를 중요시하는 간호학을 배우는 학생에 있어서야.

× × ×

우리들은 우리 본래의 자세를 우리들 자신 속에서 발견하고 격려와 힘을 얻으며 한편 스스로 용서함이 없는 신랄한 자기비판을 함으로써 여기서 참뜻을 찾게 된다.

이로써 올바른 학문하는 자세를 갖추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가 보다.

### —◇— 회원들에게 알림 —◇—

국내의 전회원들의 협조로 “대한간호”지의 발행부수가 6,000부에 달하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본협회에서는 부수의 증가에 비례해서 질의 향상을 도모키 위해 학회지로 발전시키고자 학회발족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대한간호”지에 실고자 원하는 논문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실비로 게재료를 받기로 되었음을 알려 드리며 많은 회원들의 애호를 바라고 있습니다.

게재료 : 200자 원고지 1매당 60원

원고마감 : 격월발행 예정일 1개월전까지

<출판부 편집실>